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석화2배수장 스마트 상황룸 운영 혁신 '주목'

정태희 기자 chance0917@hanmail.net

기사입력 2025.10.28 16:34:58 최종수정 2025.10.28 16:34:58



- 김인중(왼쪽 세번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청주시사 석화2배수장에 설치된 스마트 상황룸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시사 석화2배수장에 스마트 상황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스마트 상황룸 구축으로 재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복지 향상도 추구하는 모델로, 기존 배수장 운영 방식에서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

또 향후 전국의 배수장에 확산될 시범 모델로 제시됐다.

스마트 상황룸의 주요 혁신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해 대응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하천 수위 계측값, CCTV 영상, 기상 상황, 기계 작동 상태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

배수장 비상근무 직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으며, 기존 배수장의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해 건축비와 소요 시간을 절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점도 주목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석화 배수장의 스마트 상황룸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후 이 모델을 다른 배수장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재해 대응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확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무 환경을 대폭 개선하며, 스마트 수자원 관리체계로의 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장은 "석화2배수장의 스마트 상황룸은 본사, 본부, 지사가 하나가 되어 일궈낸 혁신적인 결과"라며 "이 시범 모델을 시작으로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배수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수자원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는 데 충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태희 기자 chance0917@hanmail.net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